

제2회 추경예산안 5638억원 편성 무주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무주군, 본예산 보다 772억원 증가 역대 최대 규모... 무주군의회에 제출

무주군은 제2회 추경예산안 5,638억 원을 편성해 지난 19일 무주군의회에 제출했다.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안전극복, 민선8기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4,866억 원 보다 772억 원(15.87%)이 증가한 5,638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689억 원, 특별회계는 83억 원이 증가했으며,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과 코로나19 안전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등 지원과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선도사업의 전략적 예산편성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완전

극복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16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2억 원 △코로나19 관련 운수업체 지원 2억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지원 7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8억 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1억 원 등 36억 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경제 및 문화,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7억 원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 대회 등 대회 유치 2억 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감 있는 문화공연사업 등 2억 원이다.

그리고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무주 생태모험 공원 조성 등 112억 원을 편성하고,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등 총 136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농

어촌 생활환경정비 2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 원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안전을 위해 △하상가 교량 가설공사 6억 원 등 총 41억 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9억 원을 편성했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 국제정세 불안과 물가상승까지 이어지며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해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희옥 부군수, 기재부 방문 주요 국가사업 예산 반영 요청

무주군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시킬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희옥 무주부군수는 19일 기획재정부 부를 방문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국비 요청 등 무주 관련 국가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기재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지원 요청한 주요사업으로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마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4개 국가사업이다.

무주 관련 기재부 단계 중점관리 사업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3억 원(타당성조사 용역비),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억 원(기본 및 실시설계비),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설치 3억 원(기본 및 실시설계비), 마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6억 원(기본 및 실시설계비)이 부

처에서 반영됐다.

이 중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무주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환경부 반영에 이어 기재부 예산으로도 반영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기재부 2차 심의가 계속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희옥 부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희망찬 무주를 만들 토대가 될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비 반영된 국가 사업도 부처에서 기재부에 추가 제기될 수 있도록 부처 활동도 병행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해 재편성한 정부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재난관리평가 2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진안군은 행정안전부 2022년도(2021년 실적)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이 없었던 2021년도를 제외하고 2020년도(2019년 실적)에 이어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서,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2005년부터 실시해 온 평가이다.

군은 주민이 참여하는 재난관리 인프라 구축(안전신문고 활성화), 재난안전분야 재정투자 및 기금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교육, 재난대비훈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 등의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진안군은 장관 표창과 포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역전할머니맥주서 장수 토마토·오미자 활용 신메뉴 만난다

아이스오색황도·콘치즈그라탕 출시

지난 1월 장수군과 상생 협약을 맺은 역전할머니맥주가 장수 토마토와 오미자를 활용한 신메뉴를 출시했다.

19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협약 이후 장수군과 역전할머니맥주는 장수군 농가의 신선한 농산물을 식자재로 활용한 메뉴 개발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역전할머니맥주에서는 '아이스오색황도'와 '콘치즈그라탕' 신메뉴를 선보였다.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와 오미자는 해발 500m 고랭지 지대에서 재배돼 풍부한 일조량으로 향과 품질이 우수하며, 맛도 뛰어나다.

장수 오미자를 활용한 '아이스오색 황도'는 오미자를 황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로 무더운 여름철 삼문찬 오미자 맛이 일품이다.

'콘치즈그라탕'은 콘치즈에 장수 토마토를 더한 그라탕으로 토마토와 치즈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프리미엄 기업에서 장수의 고품질 농산물을 재료로 한 다양한 신제품을 지속 개발해 장수의 농특산물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더불어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 농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푸드협의회, 선진지 견학·워크숍 실시

진안군 푸드협의회가 '진안형 먹거리 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 사례방문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19~20일까지 1박2일간 충북 옥천군과 충남 청양군의 로컬푸드 직매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점 가공센터 등을 방문해 각 시설의 추진 현황을 확인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월 1차 선진지 견학으로 군산시와 완주군을 방문해 전북 관내 선진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2차로 추진됐으며 진안군과 인구 및 규모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해당 시군의 먹거리 정책과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특히 전춘성 군수는 민·관위원으로

이뤄진 푸드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진안형 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1일차인 19일에는 옥천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거점 가공센터, 유통센터 등을 방문해 먹거리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옥천군 먹거리 계획 추진 현황을 청취했으며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먹거리 정책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또한 20일에는 청양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방문해 운영현황과 추진 중 먹거리 사업에 대한 비전과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동창욱·부위원장 손동규 의원 선출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제278회 임시회를 통해 향후 1년간 진안군 예산·결산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통해 위원장에 동창욱 의원이, 부위원장에 손동규 의원이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임할 예정이다.

동창욱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 및 결산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 한분한분의 지혜를 모아 공공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살피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손동규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군민



동창욱 의원, 손동규 의원
들이 민족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